

학 회 운 영 계 획 서

존경하는 한국운동생리학회 회원, 명예회장님들과 회장님, 그리고 이사 여러분!

한국운동생리학회 제18대 차기 회장 후보자로 출마한 제주대학교 체육학과 김영표입니다.

한국운동생리학회는 1988년 3월 19일 창립하여 32년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회원 수나 연구와 학술활동에서 체육학계를 선도하는 위상을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 학회가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 역대 회장님, 이사분들과 특히 현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입니다.

저는 평생회원, 이사, 편집이사, 상임이사, 부회장을 역임하며, 늘 학회와 동행하였고 학회 활동을 통한 선·후배 간 즐거운 학술교류의 기억들이 우리 학회와 관련한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회원 여러분과 학회를 위해 더 많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차기 회장 후보로 영광스럽게 도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학회장에 선출된다면, 거창한 사업보다 회원의 연구와 학술활동을 가장 중요시하면서 학회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하겠으며, 여러 사항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학술지의 질적 향상과 국제화입니다.

학회의 목적 중 하나인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회원들의 귀중한 연구결과가 높게 평가될 수 있는 환경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의 높은 질적 수준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한국운동생리학회 공식학술지 Exercise Science (Exerc Sci)는 2003년 등재지 선정으로 등재학술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구재단 우수학술지 등재를 통한 학술지 지원사업 및 학술대회 지원사업 선정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편집위원회 꾸준한 노력으로 Exercise Science는 2020년도에 Scopus 등재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SSCI급 국제전문학술지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논문의 영문화를 권장하여 비율을 확대하겠으며, SCI 또는 SSCI 게재된 논문에 Exercise Science 논문이 참고문헌으로 인용될 경우 “우수 연구자 상”을 신설하는 등 장기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토론과 지식공유의 장이 되는 학술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 집행부에서 학술대회를 정기국제학술대회와 국내학술대회로 재정립하여 국내·외적으로 학회의 학술활동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국제학술대회는 일본체력의학회와 공동 국제학술대회로 운영을 계획하였습니다.

국제학술대회가 한·미·일 위주로 개최되고 있으므로, 국제교류 확대를 위하여 한·미·일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홍콩 등과의 학술교류 강화 및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최로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는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내학술대회는 유사 관련 학문과의 학술교류 확대를 통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융·복합 연구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소통과 융합으로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회 발전은 회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며, 학회는 무엇보다 회원 간 학술적으로 토론하는 교류의 장이어야 합니다. 세대 간 진정한 소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준비하겠습니다.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술발표 및 포스터 발표에서 학술발표상을 확대하였으며, 교신저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학술지 학술상을 대학원생과 학문후속세대 대상으로 우수연구상을 도입하고 박사학위 우수논문상을 도입하여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처방과 같이 운동현장에서 활동하는 운동전문가와 예비 운동전문가를 위하여 즉각적으로 현장작용이 가능한 운동실습 세미나 등을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안정적 재정 확보를 통한 학회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겠습니다.

학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적으로 안정되어야 합니다. 우선 학회 차원의 중앙정부, 지자체, 공·사기업 등과 협력 및 연계한 사업 추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및 체육관련 CEO 등 다양한 분야로부터 잠재적 고액 기부자를 발굴하고 기여금을 찾아서 공헌하면 회비 면제 등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판위원회서 교재로 발간한 운동생리학, 스포츠트레이닝, 운동과 건강 등에 대한 학습교안의 질적 향상과 홍보로 수익사업을 통한 재량적 재원확충을 확대하였으며, 학술대회 개최 시 홍보부스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재정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관리를 통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현재 학회 회원 수와 이사들이 실제로 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겠으며, 학회 활동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학술행사에 적극적으로 초대하는 등 새롭게 접근하여 신규 회원과 이사를 확보하여 재정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회원들 간의 친목 형성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회는 회원 간 친목 형성과 화합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각자가 주인이 되어 누구나 오고 싶고 참여하고 싶은 토론과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회원 간 진정한 친목 형성과 화합을 위해 분과별위원회 모임 권장, 현장방문, 등산, 골프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과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학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학회 상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공 관련 취업정보 제공 등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학회장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한배를 타고 여러분과 함께 멀리, 더 길게 갈 수 있도록 실천하여 우리 학회 발전과 더 큰 도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21일 한국운동생리학회장 후보자 김 영 표